

모음음운현상 설명에 대한 연구 (I)

- 동모음 '아' 탈락현상을 중심으로 -

신 승 원*

〈차 례〉

I. 들머리

III. 마무리

II. 동모음 '아' 탈락에 대한 설명상의 문제

I. 들머리

방언(또는 지역어)의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국어연구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방언(또는 지역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언(또는 지역어)의 모음음운현상에 대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당수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음운현상에 대한 도출과정을 밝히는데 연구자들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이 더러 있다. 이미 발표된 방언(또는 지역어)의 모음음운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개진해 볼 때,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동모음 '아' 탈락에 대한 설명상의 문제.

둘째, 어미 '아' 활용 양상에 대한 설명상의 문제.

셋째, 어간의 재구조화로 인한 기저형 설정과 그에 따른 음운현상의 도출

* 영남대학교 강사

과정에 대한 설명상의 문제.

우선 먼저, 동모음 ‘아’ 탈락((乘) 타+아도→타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그 중 하나는 어간 말모음이 탈락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 두모음이 탈락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미 ‘아’ 활용 양상에 대한 설명상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견해를 보인다. 동일한 결과((戴) 이+아도→이도)에 대한 음운 도출과정을 밝힌 방안을 하나씩 들어보면, 1) ‘완전순행동화→표면음성제약’으로 설명하는 방안, 2) ‘반모음화¹⁾→전위→축약→축약→고모음화현상’으로 설명하는 방안, 3) ‘반모음화→축약→고모음화현상’으로 설명하는 방안, 4) ‘어미 두모음 탈락현상’으로 설명하는 방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간의 재구조화로 인한 기저형 설정과 그에 따른 음운현상의 도출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결과((授) 주+어도→조(:)도, 주+고→주고)에 대하여, 어간의 기저형을 단일 기저형(주+아X, 주+CX)으로 잡고 음운과정을 도출하는 방법과, 비단일 기저형(조(:)+아X, 주+CX)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최명옥 1985b).

음운현상에 대하여 설명이 다를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²⁾

첫째로, 지역차나 시대차에 의해 음운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예로는 ㄷ변칙용언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에서 ㄷ변칙활용을 보이는 ‘듣다(聞)’라는 어사가 유독 평양지역어에서는 정칙활용을 한다(듣+어서→듣어서, 듣+으니→듣으니)(김영배 1984:53). 후자에 해당되는 예로는 구개음화현상을 들 수 있다. ㄷ구개음화는 국어에서 평안도 방언과 함북 일부 지역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실현된다(김영배 1976:71, 박충구 1994:322~323). 그러나 ㄷ구개음화가 실현되는 지역에서도 일부 어사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窓)미닫이>미다지, (草)잔디>*잔지), 이는 시대차에 따른 구개음화규칙의 적용여부에

1) 이 현상을 일반적으로 활음화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j, w를 활음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반모음으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배주채 1994:18~25), 본고에서는 활음화 현상이라 하지않고 반모음화현상이라고 부른다.

2) 목천 유창균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이 점을 자주 언급하셨다.

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로,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음운현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안이 다른 경우이다. 앞에서 거론한 모음음운현상의 설명 방안에 대한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차나 시대차에 의해 달리 실현되는 음운현상도 그 나름대로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동일한 음운현상에 대해 설명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활용에서 실현되는 모음음운현상 중 동일한 결과에 대해 음운 도출과정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들에 대해 서로 비교·검토하여 가장 타당한 방안을 찾아 내고자 한다.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모음음운현상에 대한 설명상의 몇 문제 중에서 동모음 ‘아’ 탈락현상에 한정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모음 ‘아’ 탈락에 대한 상반된 견해 중 타당한 설명 방안을 찾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동모음 ‘아’ 탈락에 대한 설명상의 문제

- (1) ㄱ. (去) 가+아도→가도, 가+아서→가서
 가+고 →가고, 가+지 →가지³⁾
 ㄴ. (立) 서+어도→서도, 서+어서→서서
 서+고 →서고, 서+지 →서지

(1)의 음성형인 ‘가도, 서도’의 도출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어간 말모음이 탈락되었다는 것과 어미 두모음이 탈락되었다는 것이다.⁴⁾

3) 개별 지역어가 아닌 전국적인 방언을 연구대상 자료로 삼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조를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성조관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만 그것을 표시하기로 한다 (13~17)참조.

4) 이 밖에도 동모음 ‘아’ 탈락에 대한 단정을 보류한 견해가 몇몇 보이는데, 예를 들면 최명옥(1974:75), 정우택(1987:57), 백두현(19926:83, 주20), 구현옥(1994:126) 등이 그것이다.

그럼 먼저, 어간 말모음이 탈락되었다는 견해부터 살펴보자.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 업적으로는 김완진(1972:290), 최명옥(1976:65, 1980:180, 1982:183, 1985a:26, 1993:83), 오종갑(1978:82~85), 이병근(1978:14, 24), 신승원(1982:27), 정인상(1982:68), 백두현(1983:33), 김영태(1985:98), 조항근(1986:95), 박명순(1987:97), 김성규(1987:90), 정승철(1988:27, 1994:92), 정철(1989:111), 김종규(1989:50), 이동화(1990:84), 곽충구(1991:137), 박정수(1993:122), 옥태권(1993:20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어미 위치가 어간 위치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어간 말모음이 탈락한다(최명옥, 정승철, 정철, 김종규, 박정수 등).

둘째, 활용시 성조의 변동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탈락한다(정인상, 이동화, 곽충구 등).

셋째, 형태소의 통합에 참여하는 형태소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모두 탈락(어미 ‘아’ 탈락)하는 것은, 문장의 기능요소로서의 형태소의 기능과 의사 소통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힘든 요소를 지니게 된다(김종규).

다음으로 어미 두모음이 탈락되었다는 견해를 살펴보자.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 업적으로는 김진우(1976:8), 이병건(1976:28), 이승재(1980:93, 1990:66), 최태영(1983:106~109), 이동화(1984:48~49), 성인출(1984:30), 허웅(1985:282), 유재원(1985:14~19), 조신애(1985:37), 권병로(1987:66), 한영균(1988:7), 소강춘(1989:137~152), 오종갑(1989:37, 1994:10), 곽광모(1991:45~46), 이시진(1991:225), 최춘태(1991:10), 배주채(1991:380~382, 1994:91), 김차균(1992:38), 이병윤(1993:139), 김영선(1993:156), 정인호(1995:55) 등이 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의 기능부담량으로 볼 때 어간이 어미보다 더 크다.⁵⁾ (최태영,

5) 성조의 기능부담량도 어두(어간)에 가까울수록 커지고 어말(어미)에 가까울수록 작아진다(이혁화 1994:13).

이동화, 조신애, 이시진 등).

둘째, 표기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살펴 볼 때, 어미 ‘아’ 가탈락된 사실이 문증된다(한영균 1988:15, 고광모).

셋째, 음운론적 강도(위치 강도)로써 설명할 때, 어간이 어미보다 그것이 더 세다(이승재, 소강춘, 배주채 1994).

넷째, 음운론적 강도가 가장 약한 모음인 ‘으’가 다른 모음 앞에서 탈락되는 현상을 일반화하여 ((書)쓰+어도→써도), 동일한 모음끼리 연결되었을 때는 두 개의 모음 중 어간의 말모음이 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배주채 1991:381).

다섯째, 연결되는 어미에 따라 일정한 성조형이 나타나므로, 성조의 실현을 가지고 어간 말음 ‘아’가 탈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배주채 1994:91).

지금까지 양 견해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제 필자의 견해를 밝힐 단계에 이르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어미 두모음 ‘아’가 탈락되었다고 보는데, 그 근거를 하나씩 들어 보기로 하겠다. 물론 이러한 설명 방법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확대·심화되었음을 먼저 밝혀 둔다.

첫째, 합성어의 구성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볼 때,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보다 더 강하다.

	(生死)	(乞食)	(顧)
(2) ㄱ.	죽 Ø 살다,	빌 Ø 먹다,	돌 Ø 보다
ㄴ.	죽고살다,	빌어먹다,	돌아보다

(2ㄱ)은 15세기 조어법으로 어근과 어근이 직접 결합되었다. 이는 동사

6) 류렬(1990:72~73), 김주원(1993:290)에 의하면, 단모음 ‘이, 아, 오, 우, 어’는 1차적 생성모음이고 ‘으, 으’는 2차적 생성모음이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약모음으로 기능한다.

7) 강복수(1975:11~20)는 통시적 관점에서 국어문법 의식의 발달을 고찰하였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한자차용표기인 서기체(誓記體), 이두체(吏讀體), 향찰체(鄉札體), 구결체(口訣體) 등을 통해 볼 때, 국어문법의식은 실사(의미부) 위주의 표기에서 시작하여 점차 허사(형태부) 부분으로 확대 발달했다.

의 어근(어간) 노출현상으로서(장경옥 1989:20), 어근(실사)을 중심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한편(2ㄴ)은 오늘날의 조어법으로 어근과 어근 사이에 접미사(허사)가 게재되어 있다. 게재된 접미사(어미)는 결속력이 약해 (8ㄴ)에서처럼(들어온나→들온나)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형태소를 분석해 볼 때 어미 두모음이 탈락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 (3) ㄱ. (去) (갔다) → 가-ㅁ-다, (가라) → 가-∅라
 (가겠다)→ 가-겠-다, (가거라)→ 가-거라
 (가리다)→ 가-리-다
 ㄴ. (去) (갔다) → ㄱ-았-다, (가라) → ㄱ-아라
 (가겠다)→ 가-겠-다, (가거라)→ 가-거라
 (가리다)→ 가-리-다

형태소란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독립된 언어 단위라고 볼 때, (3ㄱ)의 어간 ‘가’에 비해 (3ㄴ)의 ‘ㄱ’ 어간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 발화는 어떤 의미 전달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배주채(1994:89-90)에서도 형태소 분석에 대한 또 다른 설명방법에서 어미 ‘아’ 탈락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탈락의 순서로 보아 어미 두모음 ‘아’가 탈락된 것이 문증된다. 우리는 앞에서 표기상의 변화를 통해 어미 ‘아’가 탈락되었다는 주장(한영균 1988:15, 고광모1991:46)을 알고 있는데, 논의의 전개를 위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4) ㄱ. (出) 나아(월석 2:51a) ~나(월석 2:52a)
 ㄴ. (去) 가아(석보 6:1a) ~가(용가 125)
 ㄷ. (過) 디나아(금삼 3:35a) ~디나(능엄1:17b)
 ㄹ. (布) 펴아(석보 6:6a) ~펴(능엄 1:4a)
 ㅁ. (引) 혀아(금삼 2:64b)~혀(두초 7:8a)

(4)의 예들에 대하여 한영균과 고광모는 어미 두모음 ‘아’가 탈락되었다

고 단정하는데 대해, 오종갑(1994:10 주10)에서는 그러한 단정적인 주장을 보류하고 있다. 그의 설명을 빌리면, ‘퍼아>퍼’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어미의 두모음(첫모음)이 삭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타당한 논거로 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퍼아>퍼어’와 같은 음모음화의 과정을 거쳐 ㅁㅁ의 연결을 이룬 다음, ㅁ 하나가 삭제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배주채(1991:397 주6)는, ‘퍼아~퍼’를 보면 15세기 국어에서 어미 ‘아, 어’가 탈락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한 이유는, 어간의 ‘아, 어’가 탈락했다면 ‘퍼아→*파’와 같은 예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필자는 위와 같은 주장을 참고하면서, 다음(5)의 예를 통하여 어미 두모음 ‘아’가 탈락되었음을 주장한다.

- (5) (立)셔아서 (석보 19:31) ~ 셔아 (월석 2:64)
~셔어 (월석 10:17) ~ 셔 (월석 2:26)

(5)의 예는 안병희(1959/78 :28)에서 취한 것이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먼저 ‘셔아서’에서 어미의 일부분인 ‘셔’가 탈락되어 ‘셔아’로 되었다. 그 다음 ‘셔아’에서 모음조화(음모음화)를 겪어 ‘셔어’가 되어 어미 부분이 변화했다. 마지막으로 ‘셔어’에서 이미 변한 어미의 ‘어’가 탈락되어 어간인 ‘셔’만 남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활용에서 일어나는 동화(순행동화)현상은, 어간의 영향을 받아 어미의 첫부분에서부터 영향을 입어 점차 끝부분으로 진행되는 순행적 방향(→방향)이고, 탈락현상은 어미의 부분에서 시작되어 점차 어간 방향으로 진행되는 역행적 방향(←방향)임을 볼 때,⁸⁾ (5)의 예는 ‘어셔’가 탈락되는 순서를 단계적으로 극명하게 보여 준다.

8) 동남방언에서 볼 때, 통시적으로 순행동화의 일종으로 해석되는 모음조화현상(음모음화 현상)은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어간이 1음절일 때는 대체로 그것이 잘 지켜지나 어간이 2음절 이상일 때는 그렇지 않다. 예) (食)먹/묵어도, (隱)숨어도, (學)배와도, (滑)미끄럽아도 등.

탈락현상에 대한 추가 자료는 예(7~9)를 참고할 것.

- (6) ㄱ. (溫) 띠거우+어라→띠게라, 띠겁+고→띠겁고 (경북 영천)
 ㄴ. (溫)뜨거우+어라→뜨게라, 뜨겁+고→뜨겁고 (전남 장흥)

(6ㄱ)은 필자가 1989년에 직접 조사한 것이고, (6ㄴ)은 강희숙(1994:78~80)에서 취한 것이다. 먼저 (6ㄱ)은 형태소 내부에서 coronal 아래의 +가 i로 변해 어간어 '띠거{ㅂ-우}-'으로 재구조화 되었다. (6)의 음성형 도출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7) ㄱ. 띠거우+어라 | ㄴ. 뜨거우+어라 (기저형) |
| 띠거워라 | 뜨거워라 반모음화 |
| 띠거어라 | 뜨거어라 반모음탈락 |
| 띠거라 | 뜨거라 어미 '어' 탈락 |
| 띠게라 | _____ 부분순행동화(ㅈ→ㅊ) ⁹⁾ |
| [띠게라] | [뜨게라] (음성형) |

- (8) ㄱ. (聽) 듣(지)도 못하고, (見) 보(지)도 못하고
 ㄴ. (入) 들(어)온나

(8)의 예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8ㄴ)은 정철(1980:42)에서 취한 것이다. (8)을 통해 볼 때 탈락되는 어미 '지'는 계열관계로 보아 '아/ 게/ 고'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 (9) ㄱ. (勿) 말아라~말(:)라~마(:)라
 ㄴ. (去) 가거라~가(:)라

(9)의 예는 여러 방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료이다. 박영준(1994:169)에 의하면, 명령형 종결어미 '아/어라, 라, 거라'는 고대에서

9) '띠거라→띠게라'의 설명은 신중을 요한다. 우선 부분순행동화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또 다른 방법으로서 설명('어라→에라'로의 유추)도 가능하므로 깊은 고찰을 요한다. 부분순행동화에 대해서는 (12)참조.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다. (9)를 통해 볼 때, 어미의 일부분인 ‘아/거’가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음운론적 강도 문제를 생각해 보자. 어간 말모음 ‘아’ 탈락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대로 과연 어미 위치가 어간 위치보다 강도가 강한 것일까?

국어에서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에 대한 언급은 이승재(1980:100), 김차균(1983:29), 이동화(1984:35~42) 유재원(1985:19), 황봉주(1985:13) 소강춘(1989:151), 곽충구(1991/ 94:192), 김영선(1993:158) 등이 있다.

참고로 곽충구가 밝힌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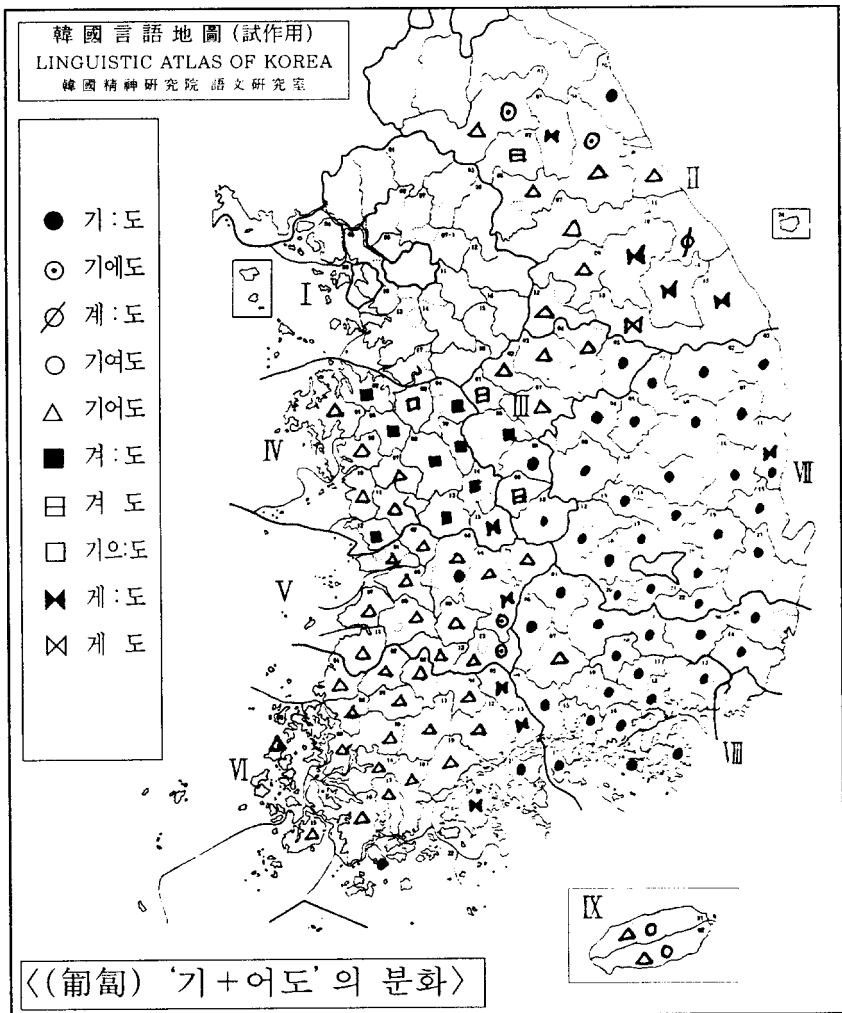
(10)	强	←	弱	→	强
弱	i		+		u
↓	e		ə		o
强	ε		a		

(10)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는 非同化現象(반모음화, 축약, 탈락)을 설명하는 데 알맞은 개념이다. 그러나 無變動이나 同化現象(완전순행동화, 부분순행동화, 첨가)을 설명하는 데는 이러한 개념이 들어맞지 않는다.¹⁰⁾

먼저 1음절 어간의 활용형((匍匐) 기+어도)에 대한 전국적인 방언 분화형¹¹⁾ 먼저 보이고 난 뒤에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자.

10) 비동화현상, 무변동, 동화현상의 음운기제에 대해서는 (12)참조.

11) (11)과(12)의 대부분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사자료를 이용했다.



- (11) ㄱ. 기:도(기이도) <경남 전지역(산청 제외), 경북 전역(영해 제외)>
 ㄴ. 기에도 <전북 장수·남원¹²⁾, 강원 철원·인제>
 ㄷ. 계:도 <강원 명주>
 ㄹ. 기여도 <제주¹³⁾>
 ㅁ. 기어도 <경기¹⁴⁾, 강원 철원·인제·고성·춘성·홍천·양양, 충남 서산·홍성·청양·보령·부여, 전북 옥구·익산·완주·진안·무주·김제·부안·정읍·임실·고창·순창·남원,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함평·광산·新安·무안·나주·화순·승주·영암·진도·해남·강진·장흥·보성, 경남 산청, 제주¹³⁾>
 ㅂ. 겨(:)도 <경기¹⁴⁾, 충북 청원·옥천·진천, 충남 당진·천원·예산·공주·연기·서천·논산·대덕, 강원 화천>
 ㅅ. 기으:도 <충남 아산>
 ㅇ. 게(:)도 <강원 양구·평창·영월·정선·삼척, 충남 금산, 전남 구례·광양·고흥, 전북 장수, 경북 영해(대)¹⁵⁾>
 ㅈ. 기:도 <전남 여천 완도, 경북 영해(괴)¹⁵⁾>

(11)은 다음과 같은 음운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12) 김선철(1993:44) 참조.

13) 김광웅(1988:136), 정승철(1988:37, 1944:93) 참조. 전자는 '기+엮→기엮/경'으로 기술하고 있고, 후자 중 정(1988)에서는 '기+엮→기엮/기엮'으로 정(1944)에서는 '기+엮→기엮'으로 각기 기술하고 있다. 이들의 기술을 종합해 볼 때 활용시 j 첨가가 수의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이병근(1978:20)에 의하면, 조사된 자료가 경기방언 중 어느 지역어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사자료를 지도에 표시하지 못 했다.

15) 영해(대)는 영해지역어 중 대진어를 의미하고 영해(괴)는 괴시어를 의미한다(최명옥 1980:165).

(ㄱ) 기+어도→기이도→기:도¹⁶⁾

(완전순행동화) (표면음성제약)

(ㄴ) 기+어도→기에도

(부분순행동화) (ㄱ→ㄴ)

(ㄷ) 기+어도→기에도→계:도

(부분순행동화) (축약)

(ㄹ) 기+어도→기여도

(j 첨가)

(ㅁ) 기+어도→기어도

(무변동)

(ㅂ) 기+어도→겨(:)도 (kjə(:)do)

(반모음화)

(ㅅ) 기+어도>겨:도>기으:도 (kjɨ:do)¹⁶⁾

반모음화 고음화

(ㅇ) ① 기+어도→기에도→계:도→계:도

(부분순행동화) (축약) (j 탈락)
(축약)

② 기+어도>겨:도>(계:도)>계:도¹⁷⁾

(반모음화) (j 첨가) (j 탈락)

16) →, >표지는 공시적 변동(→)과 통시적 변화(>)를 각각 나타낸다.

(12) 어미 ‘아’ 활용 양상의 음운기제

동화현상			무변동	비동화 현상		
완전순행 동화	부분순행 동화 (ㄱ→ㄱᄡ, ㅈ→ㄱᄡ)	첨가 (j, w)		반모음화	축약	탈락
기:도(ㄱ)	기예도(ㄴ)	기여도(ㄹ)	기어도(ㅁ)	계:도(ㄷ)→ 겨(:)도(ㅂ) 계:도(ㅇ-②)	계:도(ㄷ)→ 계:도(ㅇ-①)	

强 ← 어간의 음운론적 강도 어간=어미 어미의 음운론적 강도 → 强

(12)에 도식화된 것처럼,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는 실현된 음성형에 따라 어간의 위치가 더 강하거나 어미의 위치가 더 강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의 강도가 같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적용되는 음운현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동화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 방언(또는 지역어)에서는 어간의 음운론적 강도가 더 강하고 비동화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에는 어미의 음운론적 강도가 더 강하다. 무변동 지역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음운론적 강도가 같다.

마지막으로 활용시 나타나는 성조의 변동을 고려하여 어간 두모음 ‘아’가 탈락한다는 견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자.

- (13) ㄱ. (宿) 자+계→자^ˈ계, 자+구→자^ˈ구,
 ㄴ. (宿) 자+아두→자^ˈ두, 자+앗+다→자^ˈ닷

(13)은 광충구(1991 /94:171~172)에서 취한 것이다.

그는 (13)에 나타난 함북 육진지역어에서 성조를 이용하여 어간 두모음

‘아’의 탈락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 (14) ㄱ. (去) 가+고→가^ˈ고, 가+아도→가^ˈ도
 ㄴ. (立) 서+고→서^ˈ고, 서+어도→서^ˈ도
 ㄷ. (乘) 타+고→타^ˈ고, 타+아도→타^ˈ도
 ㄹ. (蹴) 차+고→차^ˈ고, 차+아도→차^ˈ도

(14)는 동남 방언 자료로서 정인상(1982:68), 이동화(1990:84)에서 취한 것이다. 이 중 (14 ㄱ, ㄴ)에서 ‘가+아도→가도, 서+어도→서도’로 실현된 음성형을 통하여 어간 두모음 ‘아’가 탈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고조(H)가 삭제되었다고 본 때문이다.¹⁸⁾

- (15) ㄱ. (異) 다리+고→다^ˈ리고, 달^ˈ르+아도→달^ˈ라도
 ㄴ. (呼) 부리+고→부^ˈ리고, 불^ˈ르+아도→불^ˈ라도

(15)의 예는 최명옥(1982:170)에서 취한 월성지역어 자료이다. ‘달^ˈ르+아도→달^ˈ라도, 불^ˈ르+아도→불^ˈ라도’에서 어간 말모음 ‘으’탈락과 함께 고조(H)의 이동을 가져왔다. 이 논리를 (15)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가+아도→가도, 서+어도→서도’에서 어간 말모음 ‘아’와 함께 탈락된 고조(H)는 어디로 갔는가? 분절음 총위와 성조 총위가 제각기 작용하는 자립 분절음운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15)처럼 음절은 탈락이 되어도 성조는 남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14)에서 탈락된 고조(H)에 대한 정확한 해명없이 어간 두모음 ‘아’탈락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이혁화(1994:29, 33)에서는 연결되는 어미에 따라 상이한 성조형이 실현됨을 아래와 같이 보고한 바 있다.

- (16) ㄱ. (去) 가^ˈ고, 가^ˈ마, 가^ˈ지

18) 최명옥(1980:180, 1982:123~124)에서는 비록 성조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음성형 도출 과정을 통해 제시한 성조 자료를 통해 볼 때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가진 것 같다.

ㄴ. (去) 간다, 가드라, 가도¹⁹⁾

(16)은 어절 단위의 성조형을 기술한 것으로서 어미 ‘-고, -(으)마, -지’와 ‘-ㄴ다, -드라, -아도’에 따라 어간의 성조형이 다르게 실현된다. 다시 말해, (16ㄱ)은 어간이 고조(H)로 된 (17)과 같이 다시 적을 수 있다.

(17) ㄱ. 가+고→가^ˈ고, 서+고→서^ˈ고
 ㄴ. 가+아도→가^ˈ도, 서+어도→서^ˈ도

결론적으로 성조의 변동을 통하여 (13 ㄴ)과 (14 ㄱ, ㄴ)에서 어간 두모음 ‘아’가 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배주채 1994:91).

Ⅲ.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모음음운현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미 ‘아’ 활용 양상 중에서 동모음 ‘아’ 탈락에 대한 설명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동모음 ‘아’ 탈락에 대한 기존의 상반된 두 견해(어미 두모음 ‘아’ 탈락설과 어간 말모음 ‘아’ 탈락설)를 철저히 검토하여 어미 두모음 ‘아’ 탈락설이 정당한 견해임을 밝힐 수 있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성어의 구성을 통시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보다 더 강하였다. 그리하여 어근과 어근 사이에 뒷날 게재된 접미사(어미)는 결속력이 약해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독립된 언어 단위를 형태소라 정의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어미 두모음이 탈락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셋째, 탈락의 순서로 보아 어미 두모음 ‘아’가 탈락된 것이 문증되었다.

19) (17 ㄴ)은 고고조(HH)를 인정하는 성조표기 방법이다. 여기에 동조하는 학자로는 허웅(1954), 김차균(1977), 정국(1980:160), 최명옥(1990:71~72), 김주원(1991) 등이 있다. 한편 (17 ㄴ)을 ‘간다. 가드라. 가도’로 표기하여 고고조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이에 동조하는 학자로는 문효근(1974), 정연찬(1974), 김영만(1986), 이동화(1990)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는, 어간 말모음 ‘아’ 탈락을 주장하는 이들의 견해처럼, 어미위치가 어간위치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전국적인 방언형을 분석해 본 결과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는 실현된 음성형에 따라 3유형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동화현상(완전순행동화, 부분순행동화, 첨가)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어간의 위치가 더 강했으나, 비동화현상(반모음화, 축약, 탈락)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어미의 위치가 더 강했다. 무변동 지역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강도가 같았다.

다섯째, 활용시 나타나는 성조의 변동을 고려하여 어간 두모음 ‘아’가 탈락된다는 견해는 받아 들일 수 없었다.

참고 문헌

- 강복수(1975) 『국어문법사 연구』, (형설출판사)
- 강희숙(1994) 『음운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 고광모(1991) 『국어의 보상적 장음화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곽충구(1991/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 권병로(1987) 『무풍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 구현옥(1994) Glide화와 함안지역어, 『동남어문논집』 4(동아대)
- 김광웅(1988) 『제주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 김선철(1993) 전북지역어의 ‘어간+모음어미’ 음운론과 ‘음운삭제’의 음운론, 『언어연구』 7.8(서울대)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서울대 석사논문.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서울대)
- 김영만(1986)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김영배(1968/84) 『평안방언 연구』, (동국대출판부)
- 김영배(1976) 『평안방언의 음운체계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 김영선(1993) 현대국어의 모음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국어국문학』 12

(동아대)

- 김영태(1985) 「창원지역어 연구」, (경남대출판부)
-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계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90 (서울대)
- 김주원(1991) 경상도 방언의 성조기술 방법 「어학연구」, (서울대)
- 김주원(1993) 「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 출판부)
- 김진우(1976) 「국어 음운론에 있어서의 모음음장의 기능」, 「어문연구」 9 (충남대)
- 김차균(1977/80) 「경상도 방언의 성조체계」, (과학사)
- 김차균(1983) 「음운론의 원리」, (창학사)
- 김차균(1992) 남음직씨의 형태와 음운, 「애산학보」 13 (애산학회)
- 류 렬(1990) 「조선말력사 I」, (사회과학출판사)
- 문효근(1974)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세종출판공사)
- 박명순(1987) 「거창지역어의 음운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 박영준(1994)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 박정수(1993) 「변동규칙에 의한 경남방언의 분화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 배주채(1991) 고흥방언 ‘아’ 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백두현(1983) 「금릉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 백두현(1992 a)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백두현(1992 b) 경상방언의 모음체계와 모음중화, 「어문교육논집」 12 (부산대)
- 성인출(1984)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 신승원(1982)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신승원(1989) 국어초분절음소 조사표, 학술원
- 신승원(1990 a) 영풍지역어의 분화양상, 「영남어문학」 17 (영남대)
- 신승원(1990 b) 영풍지역어의 조사자료, 「영남어문학」 18 (영남대)
- 신승원(1991) 의성지역어의 조사자료(Ⅰ), 「영남어문학」 20 (영남대)
- 신승원(1992) 의성지역어의 조사자료(Ⅱ), 「영남어문학」 22 (영남대)

- 안병희(1959/78)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오종갑(1978) 16세기 국어의 Hiatus회피현상, 『영남어문학』 5 (영남대)
- 오종갑(1983/88) ㅏ, ㅑ, ㅓ, ㅕ의 변천, 『국어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 출판부)
- 오종갑(1989) 18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인문연구』 11-1 (영남대)
- 오종갑(1994)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모음음운현상과 제약, 『인문연구』 16-1 (영남대)
- 옥태권(1993) 국어의 무형의 형태 재검토, 『용언어문논집』 6 (경성대)
- 유재원(1985) 현대 국어의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대하여, 『한글』 189
(한글학회)
- 이동화(1984) 「안동지역어의 음운동화와 삭제」, 영남대 석사논문.
- 이동화(1990) 「경북방언 성조의 자립분절음운론적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 이병건(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 음운론」, (일지사)
- 이병근(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국어학회)
- 이병윤(1993) 「중세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 이승재(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서울대)
- 이승재(1990) 방언 음운론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 이시진(1991) 활음화 현상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19 (영남대)
- 이혁화(1994) 「금릉방언의 성조연구」, 국어연구 119 (서울대)
- 조신애(1985) 「안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 조항근(1986) 「청원지역어의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 정 국(1980) 성조의 기능론적 분석, 『어학연구』 16-2 (서울대)
-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서울대)
- 정승철(1994)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논문.
- 정영찬(1974/77) 「경상도 방언의 성조연구」, (탑출판사)
- 정우택(1987) 「후기 근대국어의 형태음운론적 고찰」, 국어연구 79 (서울대)
- 정인상(1982) 통영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방언』 6.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 (서울대)
- 정 철(1980) 경북지방의 언어축약현상, 『어문론총』 13.14 (경북대)
- 정 철(1989) 「경북 의성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최명옥(1974) 「경남 삼천포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32 (서울대)
- 최명옥(1976) 부사형어미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국어학회)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출판부)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출판부)
- 최명옥(1985 a) 19세기 후기 서북 방언의 음운론, 『인문연구』 7-4 (영남대)
- 최명옥(1985 b) 변치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14 (국어학회)
- 최명옥(1990) 동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분포, 『제 18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학술원)
- 최명옥(1993) 19세기 후기 국어의 연구, 『한국문화』 13 (서울대)
- 최임식(1989) 「국어 내파화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 최춘태(1991) 「중세국어 서법소 {-거/어-} 연구」, 계명대석사논문.
-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3), 『한국방언자료집』 II ~ VIII.
- 허 웅(195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최현배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사상계사)
- 허 웅(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황봉주(1985) 「다원자질과 음운현상」, (창학사)
- 황인권(1991) 「충남 보령지역어의 음운연구」, 고려대박사논문.
- Slot, C. et al.(1978) Introduction to phonolog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